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2 회광반조 1



▶한줄 요약
로봄인쿠로 들어선 이 기자 일행은 마을에서 아소카 왕이 세운 사리탑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된다. 전설은 붓다와 데바닷다의 이야기였다.

데바닷다는 붓다를 해치려했지만…

-멀리 가지 마.

물고기처럼 헤엄쳐 나가는 그녀를 보며 내가 말했다. 갑자기 싸아한 냉기가 전신을 엄습했다.

-나 잡아봐요.

그녀가 영화 속의 여배우처럼 웃으며 소리쳤다.

헤엄에 자신이 없던 나는 추운 아이처럼 팔짱을 끼며 소리쳤다.

-멀리 가지 말라니까!

그녀가 점점 멀어졌다. 출렁거리고 있는 것은 부표인가 그녀인가?

갑자기 그녀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내가 소리쳤다.

그녀가 계속 허우적거렸다.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살려줘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제야 누군가 물속에서 그녀를 당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번쩍 눈을 떴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벌써 차창 밖은 어둠이 밀려와 있었다. 그녀를 물속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꿈은 모질다.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향해 나는 잠수부처럼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을 잡은 검은 물체를 주먹으로 쳤다. 검은 물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끌었다. 누군가 건져낸 그녀 앞에서 울고 있는 사내는 분명히 나였다.

-정애야!

왜 그때 그녀를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까? 움직여 그녀와 함께 갈 수 있었다면 차라리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내지도 않았을 것을. 그래서 붓다는 인생을 고라고 했던가?

창밖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자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를 골고 있는 건 심 작가였다. 미카엘 기자는 작가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송 서화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손으로 턱을 바친 채 차창 밖에 시선을 붙박고 있었다. 내가 부스럭거리자 시선을 돌렸다.

-몹시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송 서화가가 말했다.

-그러네요. 왜 좀 눈 붙이지 않고요?

-아직은 견딜 만하네요.

사알리 역에 닿은 것은 새벽 5시. 로봄인쿠로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길을 물어가며 세 번 정도 갈아타서야 로봄인쿠로로 들어설 수 있었다. 소읍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더니 산 너머를 가리켰다.

-저 산 너머에 있다오.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다. 잠시 걷다 보니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마을 아낙들이 모여 빨래하고 있었다. 목이 말랐던 참이라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넷이 다가들자 아낙네들이 힐끔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목이 마르군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뚱뚱한 오십 대의 여자가 볼살을 실룩이며 그러라고 했다. 넷이 물을 마시고 걷는데 중년 사내가 삽으로 땅을 파놓고 그 속에 불을 피우고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었다. 구덩이 주위의 풀을 모두 베어 말끔했다. 불길이 풀숲으로 번질까 해서 손을 본 것이 분명했다.

-아주 불길이 사납구먼요.

송 서화가가 이상한 정도로 호기심을 나타내면 그에게로 다가갔다. 내가 살펴보았더니 그럴 만도 했다. 사내가 태우고 있는 것이 종이에 그려진 그림과 노트였다. 사내가 다가오는 송 서화가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생김새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을 단박에 알아챈 표정이었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 태우고 있다오.

-아이고 아주 값진 것 같은데….

-내 아들놈 것이라오.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이런 것이나 갖고 놀고 있으니…. 그래 내 오늘 큰맘 먹고 태우고 있는 거라오.

-그런데…?

송 서화가가 아랫마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을 끊었다. 나는 그의 말을 더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왜 집이나 공터, 들판에서도 태울 수 있을 터인데 산으로 올라 태우고 있느냐는 말이었다.

-제 놈이 아끼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자 아들이 눈을 뒤집었다오. 설마 아비가 산으로 올랐을 줄이야 어떻게 알겠소.

사내가 마지막 그림을 태우고는 시원하다 하는 표정을 짓다가 성 서화가와 그의 일행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보아하니 이 나라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산 너머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요즘 그 우물에 관심을 내는지 몰라.

사내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 서화가가 물었다.

-그 우물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오?

-우물이라니요?

-아니오? 난 또….

아랫마을에 붓다 생존 시 제세 중에 물을 긷던 곳이 있다고 하였다. 요즘 그 우물이 소문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무상사(無上士)라는 말이 별스럽게 들렸다. 무상사는 석가모니 붓다의 다른 호칭이다. 붓다는 정(情)을 가진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친 호칭이 무상사다. 여래나 부처, 붓다라고 부르지 않고 정을 가진 사람으로 평등(平等)하게 본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다.



삽화 · 김상규

이내 그의 음성이 이어졌다.

-그럼 그 마을에 왜 가시오? 아, 그 수토파!

-수토파?

-우물 옆에 있는 아소카 왕이 세운 사리탑을 보러 왔구려.

송 화가가 넘겨짚는 사내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 네.' 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하긴 신묘하긴 신묘하지.

-네?

-그 안에 무상사의 사리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가끔 그 속에서 영서(靈瑞)가 일어난다오. 그것이 명계의 신들이 내려와 경배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귀 밝은 이는 그때마다 하늘에서 연주되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거든. 하기야 거기가 미륵보살님의 본거지니 그럴 수밖에.

-그렇게 유명한가요?

송 서화가의 물음에 사내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그 탑의 내력도 모르고 무작정 보러 온 것이오?

-와 본 이들이 자꾸 가보라고 해서.

송 서화가가 어울리지 않게 뒷머리를 끄적거렸다. 사내가 기가 차다는 듯이 잠시 아랫마을을 바라보고 섰다가 송 서화가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탑 뒤쪽에 범지(梵志)라는 연못이 바로 그 연못이라오.

-연못?

송 서화가가 되뇌자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사내가 송 서화가 앞으로 돌아섰다.

-무상사가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시작된 사내의 말은 이러했는데 내게는 무상사라는 호칭이 역시 별스럽게 들렸다.

무상사 생존 시 바라문이 음녀를 죽이고 부처님을 비방한 장소가 있는데 그 연못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 마을에 한 음녀가 살았다. 외도에 홀린 여자였다. 그녀는 외도의 말에 홀려 무상사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다가 고목 옆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외도들은 얼씨구나 하고 무상사와 그녀가 정을 통해 그녀를 죽인 것이라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데바닷다라는 무상사의 피붙이가 있었는데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재능만은 출중했다. 무상사의 아내가 처녀였을 때 사카족 야쇼다라 공주를 사이에 두고 연적 관계에 있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무예 시합에 패하고 야쇼다라를 무상사 즉 싯달타 왕자에게 빼앗김으로써 그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데 싯달타가 궁을 나가 깨달음을 얻은 뒤 카필라성으로 돌아오자 그에 교화되어 같은 왕족 출신인 바드리카, 난타, 아니룻다 등과 함께 출가했다.

데바닷다는 유독 지식욕이 강했다. 시기심 또한 강한 인물이었다. 그의 지식욕은 무서울 정도였다. 출가하고 언제나 무상사 곁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무상사는 그것을 나무라곤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기 아집이란 것이 별다른 게 아니었다. 자기식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불법을 효도했다. 원채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 이것저것 어깨너머로 들은 지식을 이용해 도반들과 불법을 비판하기를 좋아했고 도반들은 그의 폭넓은 지식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상대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만큼 아는 게 많았다는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무상사는 데바닷다를 불러 호되게 나무랐다. 끝내 그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야심을 품고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당시 천축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마가다국 라자가하에서 빔비사라 왕 등 여러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무상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무상사여, 그대는 이제 연로하여 편히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차후 제가 교단을 통솔하겠습니다.

무상사는 분수를 모르는 그를 나무랐다. 그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자신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에게도 맡기지 않은 교단을 맡기라고 나섰으니 나무랄 만도 하였다.

이에 분개한 그는 교단을 뛰쳐나가 빔비사라 왕의 아들 아쟈타삿투를 찾아갔다. 왕자는 부왕이 석존을 믿고 외호하는 것과는 반대로 교단 내에서 유력한 인물로 믿어지는 데바닷다를 주목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에게 왕위를 찬탈할 것을 꾀하였다.

-이제 당신은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도 무상사를 없애고 교단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권력욕이 무척 강했던 왕자는 그의 말대로 왕위를 찬탈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무상사를 살해하려 했다. 기회를 엿보던 그는 자객을 보내 무상사가 지나는 길목의 산 위에서 큰 돌을 떨어뜨렸다. 무상사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오히려 자객들이 무상사에게 교화되고 말았다.

그는 며칠 후 포악한 코끼리를 보내 무상사를 죽이려 했다. 역시 코끼리도 주인 앞에 선 개처럼 무상사에게 순종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수포가 되자 그는 베살리 출신의 수행자 여러 명을 회유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 무상사의 제자 사리풋타와 목갈라나가 찾아가 수행자들을 설득했다.〈계속〉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